

평화권지료집 부록 2003. 출처 피스넷

부 록

미국의 대외정책과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 원인

사회진보연대 이소형

전쟁이후...이제 무슨 일이?

'충격과 공포'로 명명된 '이라크의 자유화(해방)' 작전은 이제 '점령과 지배'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승전에 고무된 부시 행정부 매파 세력들은 곧장 시리아에 대해 위협을 가하면서 중동 전역에 대한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 부시는 "우리는 시리아에 화학무기가 있다고 믿는다...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신보수주의 '스타'중의 한명인 제임스 울시는 '이미 4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고,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유럽 중심으로 벌어졌지만 4차 세계대전은 중동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우디의 라덴과 같은 '와하브' 극단주의자, 시리아와 이라크의 바아쓰당 '파시스트', 이란의 '신권정치가'와의 전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점령과 지배는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마치 중세로 회귀한 것처럼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단지 하나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장기적으로 구상해왔고 또 지금 현실에 등장시키려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T.I.N.A.(There is no alternative) only but the Hawks!"

우리는 9·11 테러이후 부시 정권 내 강경 매파, 소위 신보수주의자((Neo-con, Neo-conservatism)의 독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이 일반화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의 지배적 논리는 유엔안보리가 되었건, '불량국가'가 되었건 사방에서 미국이 모멸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다가 급기야 자본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미국의 두 상징적 심장부가 테러공격을 받게되도록 "너희는 무엇을 하였는가?" "매파의 논의에 완전히 동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이들 말고 누가 미국의 쇠퇴를 진정으로 걱정하는가," "T.I.N.A only but the Hawks!" 즉 매파가 클린턴 행정부를 공격했던 방식은 미국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즉 미국이 사활적인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 관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곧 이들의 주장은 미국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는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물론 '예방적 방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선제공격을 통해서라도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맹동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매파는 '틀을 완전히 새로 찬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세력의 무능함과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들은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세력을 모아왔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군사력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군사력은 실제 사용될 때만 '충격과 공포'가 되는 것이다. 이들에게 세계는 잠재적인 적들이다. 미국의 우군은 이번 이라크 침공에 동참한 영국,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남한 등 이른바 '의지연합'일 뿐이다.

매파는 계속 싸움터를 확대해갈 것인데, 종결되지 않은 전쟁들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매파가 아닌 누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미국의 전쟁은 대외적으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도 확장될 것이다. 이미 '애국입법'에서 나타났듯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초헌법적 탄압을 확장하는 시도들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잠재적 적들의 색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배경과 직접적 원인

이하에서는 현재 '이라크 위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의 등장과,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 쿠르드족과의 내전, 그리고 걸프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결론적으로 만약 대량살상무기를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고 그것인 치명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미국이 1980년대에 뿌린 씨앗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이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후세인 정권의 등장

1968년 이후, 이라크 바아쓰당, 그리고 그 수장인 사담 후세인은 석유수입에 대한 국가통제와 모든 반대, 비판세력들—공산주의자들, 쿠르드 정파들 그리고 다수의 쉬아파 공동체들과 연계된 종교분파들—에 대한 혹독한 억압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유지해왔다. 초기 바아쓰당의 이념은 범아랍주의(pan-Arabism)였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것은 국내의 다양한 정파들과 국외의 위협세력과 경쟁하는 이라크 민족주의로 변모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 이라크는 매우 인상적인 복지국가였다. 후세인 정권은 농지개간, 교육, 국민보건, 등등 보통의 이라크 국민의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영역들에 대한 국가투자를 지속해왔다. 여타 가난한 아랍국가들(이집트, 예멘, 등)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꿈의 국가"로 여길 만큼의 이러한 이라크의 번영은 적어도 1990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약 8년간 진행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양 국가에 상당한 파괴를 안겨주었다. 1980년대까지의 모든 성과들을 한번에 없었던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라크의 모든 국가재정은 이라크 군대의 규모와 무기를 확대하는 것, 동시에 재무장과 재건에 모두 사용되었다. 게다가 1986년의 유가폭락은 이라크의 재정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어쨌든 석유수입과 여타 걸프지역 국가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후세인 정권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살아남도록 했다. 게다가 이때 이라크의 오랜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프랑스의 지원과,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에 반대하여 이라크를 지지하였던 미국, 영국, 독일로부터의 아주 은밀하였지만 막대한 지원은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종식 이후, 서양의 군수회사들과 건설회사들은 이라크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정부들과 경쟁하였다. 이들 정부들은 이라크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무기판매와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였다. 특히 미국 레이건 행정부는 이라크의 지독한 인권탄압—여기에는 이란 군대에 대한 그리고 1987-88년 Anfal 작전 당시 쿠르드 족에 대한 이라크의 생화학무기의 사용이 포함된다—에 아주 약하게 항의하였을 뿐, 이라크 제재에 대한 상원의회의 결의안 통과를 막아냈다. 하지만, 이러한 서양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의 태도는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사막의 폭풍, 그 이후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기인한 심각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우선 이라크는 전쟁 기간 동안 쿠웨이트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침공과 합병을 통해 이것을 탕감하고, 더불어 쿠웨이트와 이라크 접경지대인 루마일라(Rumaila)의 석유자원을 공동개발하여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아랍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적어도 미국이 협의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또한 그는 미국이 쿠웨이트 침공 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우디 왕가가 비-아랍국가의 군인들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결

국 이라크는 어찌되었든 하나의 주권국가였던 쿠웨이트를 침공하였으며, UN 안보리는 이라크의 행위에 반대하는 광범한 합의를 끌어냈다—여기에는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가 포함되었다. 1991년 1월 16일, 미국과 동맹군은 대 이라크 폭격을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거주지, 전기시설, 수도, 위생시설 등이 파괴되었다. 2월 24일에는 전면 지상작전을 개시, 100시간만인 2월 28일 전쟁종식을 선언했다. 이라크 역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라크군은 42개 사단 중 41개 사단이 무력화되고 15만 명의 사망자를 낸 끝에 패퇴하였으며 다국적 군은 125명의 전사자를 냈다. 이때 후세인은 국내 쿠르드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어떠한 군사적 조치나 제재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는 이라크 국민들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을 방조했다.

감시와 제재

1991년 이라크 생화학무기에 대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이라크 감시 및 제재체제가 가동되게 된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두가지 생각을 둘러싼 긴장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후세인 정권을 제거할 것인가 아니면 UN 결의안에 이라크 정권을 순종하게 할 것인가였다. 걸프전쟁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주도되었던 아랍동맹국들은 이라크에서 군사쿠데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을 선호하였다. 사우디와 여타 아랍국가들은 이라크 남부에서 시아파의 봉기와 정권장악을 가장 경계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이란의 영향과, 그로 인한 자국내 시아파의 파급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쿠르드 노동당(PKK)과의 전쟁에 연루되어있던 터키의 경우, 쿠르드족에 의한 정권장악이 터키 쿠르드족들의 독립요구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사실 2001년까지만 해도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전쟁과 경제제재의 영향 때문에 생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또 희망했다. 하지만 1991년 이래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외부의 지원이 있었든 없었든, 어떠한 쿠데타도 성공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1993년에 이르러, 클린턴 행정부는 이른바 "불량국가"였던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이른바 "이중봉쇄" 정책을 제기하였다. 이 정책의 목적은 사담 후세인을 "상자안에 가두어" 이스라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후세인 정권은 경제제재가 부과하는 요구안들을 수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재안은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정권교체를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분열하였다. 이라크 민족회의(INC)가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었지만, 위험도가 너무나도 컸다. 쿠르드족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은 쿠르드민주당(KDP)과 일정한 경제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정권교체에 성공하여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결국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후 어떤 정권이 집권해야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었다. 하지만, 9·11과 그 후 과정은 미국에게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했던 것일 수 있다. 이제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성공적인' 경험에 있다.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 원인

우리는 9·11테러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 의도하고 있는, 그리고 중동지역의 정치적 분쟁에 개입해 가는 미국의 의도와 관련하여 이라크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이 9·11테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빈 라덴의 실체에 대해 두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그가 사우디 왕조를 반대했다면 왜 사우디를 한번도 공격하지 않았는가? 둘째, 그가 사우디를 위협했다면 사우디 정부는 왜 탈레반 정권을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했는가? 1990년대 중반 사우디의 왕권승계를 둘러싼 투쟁과 시리아와 이라크의 비밀외교가 이 질문을 푸는 열쇠다. 사우디의 황태자 압달라는 친미 성향

의 국왕과 왕족들과 달리 범이슬람주의 또는 범아랍주의 성향을 강조했다. 압달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건국에 기여한 와하브 운동에 깊이 결합하였고, 그 운동은 미군의 사우디 주둔에 매우 적대적이었다. 압달라는 사우디가 요르단 및 터키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방해했다. 따라서 왕위계승이 어떻게 결판나느냐에 따라 사우디의 미래가 친서방 쪽으로 또는 친 시리아/이라크 쪽으로 기울 수 있는 중대한 고비였다. 압달라가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그의 라이벌이 권력장악을 시도하고, 이때부터 압달라는 시리아 정보국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1995~96년은 중동질서는 미국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된다. 이스라엘은 요르단 및 터키와 전략적 협력을 시작했고 요르단은 반이라크의 선봉에 선다. 사우디-요르단-이스라엘-터키라는 강력한 친미 블록이 형성되는데 반해, PLO는 붕괴 직전에 처하며, 이란혁명도 미궁에 빠진다. 이 때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의 관계는 적대에서 반미 동반자로 바뀌고, PLO는 잡다한 테러리스트 조직을 지원하고, 압달라는 시리아 정보국과 관계를 형성한다. 이처럼 사우디(와하브/압달라)-시리아-이라크-PLO 블록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라덴의 네트워크가 발전했다. 사우디의 반체제 세력의 대부분 왕족만을 표적으로 삼지만, 빈 라덴은 미국과 왕족을 분리시켜 간접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을 추구했다.

2001년 8월 국왕은 사우디 정보국장 알 파이잘을 해임했다. 알 파이잘은 빈 라덴과 오랜 인연이 있으며, 그가 이끄는 정보국은 압달라를 지지했다. 특히 그는 라덴의 자금 루트를 제공했으며, 그의 형은 '자선단체'를 통해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재정을 조달했다. 또한 파이잘의 형은 1998년 이라크의 테레조직과 라덴의 접촉을 매개했다.

권력상층에 진입하지 못한 사우디의 왕족들 중 일부는 라덴의 노선에 매혹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사우디는 미국이 아프간을 넘어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알카에다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객관적 사실을 매우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정말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데에는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범아랍주의 이데올로기의 확대나 반미 블록의 형성을 완전히 봉쇄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으며, 특히 빈 라덴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라는 데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중동에서의 주전선은 알 케에다와 연루되었다고 추측하는 사우디(극단적 와하브주의자와 일부 왕족 세력)와 시리아, PLO 등과 이라크가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미연에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의 중동지배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며, 사우디 내부의 세력관계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변화한다면 미국은 중동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블록의 형성에 핵심고리가 될 수 있는 이라크 후세인 체제를 공격하는 것이 초점이었던 것이다.

미국과 아랍, 그 전쟁의 협주곡

새로운 형태의 테러, 새로운 방식의 전쟁, 새로운 성격의 제국주의의 정형을 발견할 수 있는 아랍현대사는 1967년 6일 전쟁과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상과 1991년 걸프전과 1993년 오슬로협정과 같은 사건들로부터 출발하여 얼마전 종전을 선언한 이라크 전쟁까지이다. 각 사건들이 상징하는 변화는 다양하지만 67년 '6일 전쟁'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것은 중동지역의 종속의 심화, 그와 함께 연관된 종교적·종족적 정체성의 정치도구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이라크 전쟁에서도 보여지는

1970년대 냉전의 격화시기, 미국은 이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슬람을 정치도구화하였다. 미국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현상적인 대립, 즉 반제국주의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동반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 아랍세계의 석유수출의 40%에 이르는 부와 이슬람을 이용해 미국의 동맹국이 된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세계에서 이슬람이 이데올로기와 정치운동의 지배적 요소가 되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결프전 이후 아랍정권들의 종속과 정치갈등의 심화

결론적으로 결프전은 새로운 지역질서의 주된 요소였던 이슬람담론의 지배, 종족·종교에 따른 분열, 국가 간 갈등자극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먼저 이라크의 경우 결프전은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지 못한 채 이라크사회의 총체적 위기만 가져왔다. 결프전에서 정권유지와 반군의 통제, 그리고 이에 필요한 군사력 보존에만 주력했던 후세인에게 전쟁과 전후의 경제적, 군사적 제재는 정치적 위협이 되지 못했다. 히틀러의 정권장악에 기여한 독일의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보다도 더 패전국의 지불능력, 국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은 배상금과 12년간의 경제봉쇄는 대다수 국민의 생존 기반을 앗아갔으며 이제 국제사회의 지원이 미치는 남, 북부 국경지역이외에는 국가의 자원을 독점한 정권의 호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국민이 정권에 더욱 의존적이 되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주권 국가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유엔시찰단의 요구,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라크쪽의 거부,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한 시찰단의 철수와 그에 뒤이은 공습이 반복되는 상시적 전쟁상황은 그간 서구언론이 만든 민족 영웅으로서의 후세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소수민족 문제도 더욱 악화되었을 뿐이다. 결프전을 거치면서 미국이 부추긴 북부 쿠르드족과 남부 시아파의 분리독립운동은 미국의 소극적 개입과 주변국의 반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대신에 연합군의 본격적인 지상개입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주변국 누구도 원치 않는 쿠르드 독립운동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수십만의 이주, 혹독한 정부군의 탄압, 그리고 쿠르드족이 대규모로 거주하는 이란, 특히 터키의 정치적 혼란과 쿠르드족의 고통만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결프전이 야기한 군비경쟁은 각지에 대량살상무기의 증대를 가져왔고 무기수입의 증대로 인해 민중의 생활수준은 악화되었다.

결프전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시리아마저도 연합군에 가담한 사실이었다. 물론 시리아는 이미 75년부터 레바논에 대한 침략과 내정간섭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행한 레바논 분열전략의 동조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래도 시리아의 참전은 이 지역 반제, 반시오니즘 세력의 결정적 패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으며 시리아는 전쟁참여에 대한 대가로 레바논에 대한 자유로운 개입을 보장받았다. 리비아도 스코틀랜드에서의 펜암기 테러, 니제르에서의 UTA기 테러의 용의자 신병인도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봉쇄로 고립되어 이제 가다피는 반제국주의, 아랍통합의 기수로서의 아랍정치에서의 기존의 위상을 잃었다. 이렇게 반제, 중립노선의 국가들은 결프전이 낳은 새로운 지역질서 속에서 변신 또는 고립되게 된다.

-이라크 전쟁이 아랍에게 가져올 후과들

이라크 전쟁의 후과는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먼저 미국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세계석유시장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전쟁은 이라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우선 이라크를 보호령으로 만든 후 이라크 석유증산을 통해 세계석유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이 증산이 가져올 유가하락으로 미 경제를 회복시키려 할 것이다. 그 이후 이렇게 강화된 입지를 바탕으로 미국은 동맹국 사우디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우디 석유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우디 정치의 변동을 시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악의 축"에 포함된 또 다른 석유대국 이란도 미국의 무력개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동지역의 전장화는 또한 이미 극단적인 길을 걷고있는 이스라엘의 폭력에 면죄부를 주어 팔레스타인 문제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고 국가간, 종족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되고 현 정권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아랍현대사의 경험을 보면 지역질서의 불안정과 사회통합의 위기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의 모색을 저해해 종교적·종족적 정체성을 도구화하는 세력들이 민중의 힘을 가로채 왜곡시켜왔다. 더욱이 전쟁, 즉 6일 전쟁, 이란-이라크전쟁, 레바논전쟁, 결프전은 그 자체가 낳는 비극과 더불어 이성적인 대안모색과 정치적 발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 무장한 세계화

냉전질서의 해소와 걸프전쟁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전략적 사고는 세계적 군사주의의 새로운 유형을 창조했다. 냉전 이후 각지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분쟁의 성격 역시 지역적으로 차별적이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역시 지역적으로 차별적이며 세분화되고 있다. 즉, 미국은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 사활적이라고 간주되는 지역에서는 냉전 시기 동안 육성해 온 군사적 동맹관계의 공고화를 꾀하지만, 세계경제의 통합으로부터 '배제된 기타의 지역'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배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양상을 띤다. 민족체로의 복귀와 분리주의, (비국가적) 군사 행위자들의 급증, 금융센터 외부에서 벌어지는 민중학살, 그리고 남반구에서의 빈곤의 심화, 북반구 내부로의 빈곤의 역수입 등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냉전질서의 해소는 더 이상 미국에 필적할만한 강력한 경쟁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제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정치-경제-군사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은 당장 미국의 독보적 지위에 도전할 수준은 아닐지언정, 잠재적 경쟁자로서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중동과 극동에 산재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지역적 강국'들은 비록 미국중심의 세계체제로부터 주변화되고 배제된 국가들이었지만 미국의 패권 전략에 언젠가는 반기를 들고,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불량 국가'들이 되었다.

이에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의 세계화를 통해 주변부에 대한 중심부 국가들의 공동지배를 확립하고 배제된 지역 및 국가의 갈등을 무마, 관리하고자 노력했다. 배제된 지역의 갈등이나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해결책보다는 주로 군사적 수단에 의존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한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은 배제된 지역에서의 반미-반세계화 투쟁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잠재적 위협요인들과 투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미국은 자국의 헤게모니와 초민족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인 군사화를 추진했고 이제 '자본의 세계화'와 '군사의 세계화'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작용하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장적인 국제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의 확고한 기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미국은 그 자신이 세계화의 주요 수혜국이며, 세계화의 옹호는 미국의 중대한 이익이 걸린 문제라고 공공연하게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은 "상업과 금융 네트워크, 수송과 에너지, 환경 등 세계의 주요 체계들의 안정과 원활한 작동의 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군사적 개입이 석유 네트워크를 넘어서 금융시장의 보호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나토 정상회의는 회원국이 대처해야 하는 경제·사회적 위협은 "자연자원의 영유와 유통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회원국의 영토가 아닌 지역에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사고는, 그것을 지지하는 이해집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고해진다. 이미 1993년 이후 금융자본, 연기금, 금융분석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거대 군수기업들간의 집중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펜타곤의 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이 '평화'나 '국가건설'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고, 아프카니스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사태는, 미국이 자신의 주변부에서 '국가건설'의 문제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미국에게 주변부는 국가건설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초국적 기업의 이해에 따라 국가를 해체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종종 끝이 없으며, 그러므로 '승리'도 '평화'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등 황폐한 지역은 이러한 형태의 무질서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